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10월 31일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을 열암곡 일원에서 봉행했다. 사진은 고불식 직후 주요 내외빈 기념촬영 모습.

조계종, 열암곡 마애불 세우기 첫발 내딛다

10월 31일 남산 열암곡서 고불식
'바로 모시기' 서원 부처님께 알려
진우 스님 "천년 세워 불교중흥"
정부부처·지자체 등 협조 약속해
종정예하, 불국사 등 기금 전달도

경주 남산=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열암곡)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천년을 세워 그 공덕으로 개인들은 서원을 성취하고 나라는 부강한 강대국의 위상을 확립하며 불교를 다시 중흥시키겠다는 신실한 원력입니다."

지난 2007년 엎어진 채로 발견된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겠다는 오롯한 서원이 경주 남산 열암곡 일원에 울려퍼졌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10월 31일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을 열암곡 일원에서 봉행했다.

'천년을 세우다' 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고불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과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등을 비롯한 경북 5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주낙영 경주시장,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이영경 동국대WISE캠퍼스 총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천년을 세워 불교중흥 · 국운창성 기틀"

고불식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마애불 앞에서 108배를 하며 부처님을 바로 모시지 못했음을 참회하고, 부처님을 바로 세워 불교중흥을 이룰 것을 기원했다.

이어진 고불식에서 진우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의 시작을 알리고, 불교중흥과 국운창성의 기틀을 만드는 불사임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오늘 이곳 경주 남산에는 천년을 쓰러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한 사부대중의 간곡한 원력이 모였다"면서 "지금 이 자리, 간절한 서원으로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셔 천년을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 원력은 진실한 언어로 부처님 법을 전해 불교중흥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굳은 서원"이라며 "이 마음은 국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국운창성을 이루겠다는 진솔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마애불 바로 모시기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교육원장 당시 백만원력불사 동참을 위해 열암곡을 찾은 후 마애불 바로 세우기에 대한 원력을 갖게 됐다"고 술회한 진우 스님은 "만약 서양에서 예수의 성상이나 십자가가 누워있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라며 "이것은 불제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며, 문화유산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국격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스님은 "여기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것은 찬란했던 천년 신라를 세우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서 국운창성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마애부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경북도와 경주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예산이 문제라면 조계종에서도 적극 나서서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 · 지자체, 마애불 입불 협조 약속

고불식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 지자체 수장들의 정책적 지원 약속도 이뤄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축사에서 "8세기 후반경 조성된 열암곡 마애불상은 1550년경 발생한 진도 7의 지진으로 인해서 전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발견 이후 경주시에서는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존 정비 방안을 마련했으며, 작년 10월 경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하며 "현재 용역을 통해 마애불상을 어디에 세울지 연구 중에 있다. 불교계와 학계 등과 협력해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김상철 경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1000년의 세월 동안 묻혀 계셨던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면서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가 부처님의 가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은 "총무원장 스님의 제1 정책 과제인 만큼 문체부에서도 국민과 합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다. 이번 불사가 한국불교 중흥과 대한민국의 중흥이 이뤄지는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도 안형순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 청장은 "원만한 모습으로 2007년 우리 앞에 오신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문화재청은 잘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마애불 입불을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열암곡 마애불이 세계가 함께하는 인류 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부대중, 부처님 바로 모시기 '한마음'

이날 고불식에서 참석 사부대중은 열암곡 마애불이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다. 불국사와 낙산사는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 기금으로 각각 1억 원을 쾌척했다. 고불식에 앞서 이뤄진 진우 스님의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예방에서 대종사는 금일봉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부대중은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께서 일어나면 어리석은 중생은 무지와 착각에서 깨어나니 이는 한국불교가 중흥하는 바로 세움"이라며 "온 우주법계 광명이 충만하니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국운이 융성하며 고통과 차별없는 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서원했다.

"금강산 왕래길,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민추본, 11월 1일 금강산 순례길 세미나



"금강산 평화순례길은 우리 선조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곳으로, 특히 유네스코 유산이 강조하는 역사 및 종교 혼합유적지이기도 합니다. 남북 평화순례길을 복원, 유네스코 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협력 공간을 구축하길 기대합니다."

금강산 왕래길의 가치를 활용, 남북 평화순례길을 복원하고 나아가 유네스코 유산 남북공동 등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는 11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금강산 평화순례길 연구 학술세미나' 를 개최했다.

'기록으로 보는 금강산 옛길과 남북 평화순례의 길 모색' 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사진>는 '남북 평화순례길 유네스코 유산 남북공동 등재 모색' 을 주제로 발제하고 금강산 남북 왕래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과 효과 측면을 분석했다.

허 교수는 금강산 남북 왕래길을 평화순례길 관점에서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설악산-금강산 불교유산 평화순례길 △양구 펀치볼-금강산 전쟁유산 평화순례길 △철원-금강산 관광유산 평화순례길이 그것이다.

과거 신라시대부터 동쪽 해안 주변을 중심으로 불교유산이 발전했고 대표적으로 설악산 신흥사와 금강산 신계사, 주요 거점 사찰 간 성지순례길이 존재했음을 강조한 허 교수는 "사찰 성지 순례길을 통해 주요 스님들은 불교의 가치를 전파하고 지역 평화안착 활동을 지속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전쟁 시기 양구군 심곡사와 북한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는 남북 간 고지점령을 위해 많은 희생이 발생했던 곳이고 철원의 경우 최초 전기철도가 건설된 지역으로 철도관광산업이 본격화된 지역이기도 해 의미가 크다"고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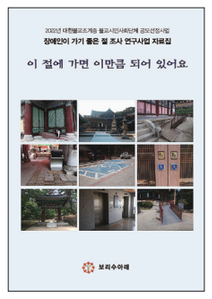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아픈 역사가 절대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허 교수는 "우리 조상이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남북 간 종교적 · 평화적 · 경제적 가치를 활용, 남북 평화순례길을 복원하고 나아가 유네스코 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협력 공간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사는 '금강산 옛길에서 만난 양구 · 인재 지역의 사지 현황과 활용' 에서 정밀학술조사 진행을 통한 사지의 역사적 · 학술적 가치를 밝히는 작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유근자 동국대 초빙교수는 '금강산 유점사 53점 순례길의 의미와 현재적 모색' 을 통해 불교신앙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순례길의 탄생을 염원했다.

임은호 기자

장애인이 가기 좋은 사찰 어디일까

보리수아래, 90여 개 사찰 조사
장애인 직접 살핀 편의시설 담아



장애인불자모임 보리수아래가 장애인 이용 환경이 좋은 사찰 정보를 담은 자료집 '이 절에 가면 이만큼 되어 있어요' 를 발간했다.

'이 절에 가면~' 은 보리수아래가 3월부터 추진해 온 장애인이 가기 좋은절 조사연구의 결과물이다. 보리수아래 회원들이 전국 90여개 사찰을 방문, 각종 편의시설을 직접 경험하고 정리했다. 사찰은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어 포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료집은 출입구 경사로와 도움벨,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 점자촉지도, 엘리베이터, 핸드레일 등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완비된 사찰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직접 사찰을 방문해 사찰의 편의시설을 살펴봄으로써 법적 기준보다는 실제 느끼는 체감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사해 눈길을 끈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사찰의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고하고 사회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사찰환경도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면서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사찰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템플스테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황금법당 수국사 템플스테이



스님과 함께 정진하는 참선 템플라이프

당신은 지금 행복 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누구나가 한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셨을 질문들...
이번 "사대부중과 함께하는 참선을 통해 답을 찾아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프로그램 일정

시작시간	일정명
08:00~08:00	요가
08:30~09:30	참선정진
09:00~10:00	참선지도
10:00~11:30	사시예불(법당)
11:30~12:00	점심공양(공양간)
13:00~15:00	걷기참선(서오릉)
15:00~15:00	회향

황금 템플스테이 (당일형)

다양하게 체험하고 황금 힐링하세요.
어디서? 수국사 황금 템플스테이!
언제? 일상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때!
바쁘다는 핑계로 흐지부지 하루하루,
또 한달 한달 지나가고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다보니
지치고 힘들어 잠시 쉬어 가고 싶을 때!
일상 속의 스트레스, 피로를 비우고 싶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위로가 필요하실 때!
참 좋은 인연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휴식형 템플스테이 (1박2일)

코로나로 힘들었던 일상~~!!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휴식형 템플스테이 입니다.
복잡한 도심속을 주말(토,일)에 잠시 들러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문의 서울특별시 서오릉로 23길 8-5(구산동) Email : suguksa@templestay.com ☎ (02)356-2001 Fax (02)359-6297